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일손 부족 농가 찾아 농촌일손돕기 실시

기사입력 2026-05-21 19:04

[인쇄](#)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조정옥)는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나섰다.

영주봉화지사는 지난 5월 20일, 본격적인 사과 수확의 초석이 되는 적과 시기를 맞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일원의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영주농협과 협업하여 진행됐으며, 영주봉화지사 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적기 수확을 위한 작업에 힘을 보탰다.



도움을 받은 농가 주민은 “사과 적과 작업은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에 큰 지장이 생겨 걱정이 많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정옥 영주봉화지사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적기 농작업에 차질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촌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역 농업인과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는 매년 농번기 일손돕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